Read at Home Level 5 : The Palace Statues

책을 읽을 때에 재미를 느껴야 아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.

Tips for Reading Together

+ 제목과 표지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.
+ 먼저 책에 나오는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훑어 보고,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.
+ 책을 읽어 주시면서 아이가 함께 읽어가도록 참여를 유도하세요.
+ 아이가 책을 읽을 때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,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세요.
+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힌트를 제시하세요. 예를 들어, 단어의 첫 글자를 천천히 읽어주면서 힌트를 줄 수도 있고, 단어를 쪼개어 읽어주거나 문장 전체를 반복하여 읽어 주어 알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단, 어떤 방법을 쓰던 아이가 그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
+ 책을 읽어 가면서 그림 속에 숨겨진 과일의 그림들을 찾아 보세요
+ 아이가 원하는 만큼 책을 계속 반복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.

아이들은 반복하여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, 그럼으로써 자신감을 더 얻게 된답니다.
즐거운 시간 되세요 !

숨은 그림 찾기! 그림 속에 숨어 있는 10마리의 쥐를 찾아보세요.

본문내용

P5
– 아이들은 '금으로 된 조각상' 이라는 게임의 옷을 입었어요. 칩은 동상이었어요.
– 그는 망토를 입고 얼굴은 금색으로 칠했어요.

P6
– "나는 금색으로 칠한 이 얼굴이 좋아," 아네나가 말했어요. 매직키가 빛나기 시작했어요.

P7
– 마술은 아이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. 그들은 한 남자가 소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.

– "울지마, 에바," 그가 말했어요.

P8
– "무슨 일이니?" 비프가 물었어요. "이 사람은 나의 오빠, 아란이야," 에바가 말했어요.
– "그는 궁전에서 금 조각상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."

P9
– "조각상들은 모두 보석을 가지고 있어," 아란이 말했어요.
– "그런데 누군가 그 보석들을 다 훔쳐갔어, 그래서 내가 그 도둑들을 잡아야해."

P10
– 아란은 아이들에게 금으로 된 조각상 들을 보여 주었어요.
– "아마 도둑들은 오늘 저녁에 더 많은 보석들을 훔칠 거야," 그가 말했어요.
"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?"

P11
– 칩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. "금 조각상처럼 너도 그렇게 입어," 그가 말했어요.
– "그리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는거야."

P12
– 그날 저녁, 아란은 금 조각상처럼 옷을 입었어요.
– "나는 우리가 얼굴에 금으로 칠하게 돼서 좋아," 아네나가 말했어요.

P13
– 아란은 조각상 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는 제일 어두운 곳에 가서 섰어요.
– "보석이 필요해," 에바가 말했어요. 그녀는 그에게 목걸이를 주고 밖으로 나갔어요.

P14
– 갑자기,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. 2명의 남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.
– 그들은 나머지 보물들을 가지고 갔어요.

P15
– 한 남자가 아란을 발견했어요.
– "나는 어젯밤에 이 조각상을 보지 못했어," 그가 말했어요. "이 목걸이도 가지고 가자."

P16
– 그 남자가 목걸이를 잡자 아란을 숨을 쉬지 않았어요.

– 드디어, 그는 비밀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.

P17
– 아란은 아이들을 불렀어요. 그는 그들에게 비밀의 문을 보여주었어요.
– 그들은 조용히 슬며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어요.

P18
– 갑자기, 비프가 걸려 넘어졌어요. "거기 누구지?"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.
– "뛰어!" 나딤이 조용히 이야기 했어요. "계단 밑으로 숨어."

P19
– 도둑이 계단 쪽으로 왔어요. 그는 햄프를 들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조각상처럼 있어서 못봤어요.
– "여기에는 아무도 없어," 그가 말했어요.

P20
– 그 남자는 창고로 들어갔어요. 그들을 따라간 아이들은 문으로 슬쩍 들여다 보았어요.

P21
– "저 곳에 다른 문이 있어!" 아란이 말했어요.
– "아마 저 문은 궁전의 정원으로 가는 길인가 봐. 그들은 저 문을 통해 탈출하나 봐."

P22
– "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," 나딤이 말했어요, 그리고 그는 다른 계획을 말했어요.
– "정말 좋은 생각이야," 에바가 말했어요.

P23
– 에바는 다시 돌아갔어요. 그녀는 보초병들에게 정원에 있는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 했어요.
–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.

P24
– 아란은 당당하게 창고로 들어갔어요..
– "내 목걸이를 내놔!" 그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소리쳤어요.

P25
– 도둑들은 달아났어요. "도와줘요! 조각상이 살아있어!" 그들은 소리 질렀어요.
– 그들은 정원의 문으로 나갔어요…

P26
– … 그리고 바로 보초병들에게 달려 갔어요!

P27
– 다음 날, 아란과 에바는 아이들에게 금 조각상을 주었어요.
– "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웠어," 그들이 말했어요. 매직키가 빛나기 시작했어요.

P28.
– 마술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. "조각상은 에바처럼 생겼어," 나딤이 말했어요.
– "맞아," 칩이 말했어요. "그리고 아네나 모습이 조각상 같아!"

Think about the story
+ 왜 에바는 울고 있었니?
+ 나딤의 계획은 무엇이었니?
+ 아이들은 숨어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?
+ 누군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 줄거니?

Helping Aran
아란이 조각상들과 보물들이 맞도록 연결해 주세요.

* 본 책에 등장하는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들
: began called children door face garden gave idea might others room suddenly
* 본문에 나온 이름들: Anneena Aran Biff Chip Eva Nadim